

KIA 마운드 구세주 났다... 황동하 인생투

광주서 SSG와 더블헤더 1차전
5이닝 2피안타 2탈삼진 1실점
황동하 “주전 선발 되고 싶다”
김선빈 ‘솔로포’ 3-2로 역전승



KIA 타이거즈 황동하가 선발 경쟁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KIA는 1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3-2 승리를 거뒀다. 선발로 나선

황동하가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SSG 엘리아스와 기싸움을 벌이면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프로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황동하의 활약으로 KIA는 승리를 거뒀다.

황동하의 시즌 세 번째 선발 등판, 시작부터 깔끔했다. 황동하는 1회 첫 상대 최지훈을 5구째 3루수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처리했다. 이어 4구째 직구로 박성환을 2루 땅볼로 돌려세웠고, 최정은 초구에 3루 땅볼로 요리했다.

2회도 삼자범퇴였다. 황동하는 에레디아를 3루 땅볼, 전의산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오태곤과의 승부에서는 5구째 방망이를 헛뜯게 하면서 탈삼진을 뽑아냈다.

3회에는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실점은 없었다.

김민식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은 황동하는 김광평을 2루 땅볼로 돌려세웠다. 최경모의 땅볼을 유격수 박찬호가 놓치면서 주자가 나갔지만, 최지훈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황동하가 3회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4회 황동하가 선두타자 박성환에게 이날 첫 안타를 내줬다.

박성환의 타구가 좌익수 키 넘으면서 2루타가 됐다. 최정의 1루 땅볼로 1사 3루, 에레디아의 타구가 중견수 방향으로 높게 뜨면서 희생플라이가 됐다. 황동하가 선취점을 내줬지만 전의산과 10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잡으면서 4회를 마무리했다.

엘리아스에 막혀있던 KIA 타선도 4회말 김도영과 최형우의 연속 안타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우성의 볼넷 뒤 소크라테스의 좌전 적시타가 나오면서 1-1 그리고 김태군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밀어내기로 2-1을 만들었다.

황동하는 5회 첫 타자 오태곤을 우전 안타로 내보냈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우면서 5이닝 2피안타 2탈삼진 1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7회초 2사 1-3루에서 최지훈의 내야안타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황동하의 승리는 사라졌지만, 김선빈이 7회 좌월 솔로포로 다시 리드를 가져온 뒤 마무리 정해영이 8회 1사에 출격해 5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면서 KIA의 승리가 완성됐다. 승리의 주역이 된 황동하는 이날 경기를 ‘50점’으로 표현했다.

황동하는 “오늘 점수는 50점이다. 승리까지 거르면 100점인데, 못 했으니까 50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중요했던 경기에서 팀 승리에 기여를 한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대체선발’이 아닌 ‘선발’로 한 단계 도약하고 싶은 프로 선수로서의 욕심을 표현한



KIA 황동하가 1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더블헤더 1차전 선발로 나와 역투를 선보이고 있다. 황동하는 5이닝 1실점의 피칭으로 3-2 승리를 이끌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50점’이다.

황동하는 “대체 선발하면 평가 듣기에도 그렇고 나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다. 지금은 대체 선발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전 선발이 되고 싶다. 오늘 경기가 중요한 것 알고 있었고, 중요한 상황에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며 “중요한 상황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승리는 어렵지만 승리투수 조건이 안 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 지금까지 패배에 없는데 패를 더 안 싫었다”고 웃었다.

또 “대배 후 최고의 피칭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긴장도 많이 하고 내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보여준 것 같다”며 “공격적인 피칭 좋아하고, 변화구도 스트라이크 넣고, 템포 빠르게 해서 자신 있게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마운드에서 자신도 없었고 변화구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 못 던질 것 같다는 마음이 컸다. 특출난 게 없이 프로에 들어왔고, 자신감으로 기세로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그게 없었다. 오늘은 맞든 안 맞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지난번에 5회 던졌는데 한 번 해봤던 거라서 마음 편하게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집중한 황동하는 포수를 믿고 혼신을 다한 1구 1구를 선보였다.

황동하는 “어제 몸값이 풀었는데 경기가 우천 취소돼 팔도 그렇고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다. 그래도 전력으로 던져야겠다고 생각할 때 구속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전력으로 던졌다”며 “앞선 경기에서 내 욕심에 직구 던지고 싶어서 포수 사인에 고개를 숙였을 때마다 흥분 맞고, 안타 맞고 결과가 좋지 못했다. 이번에는 사인 맞춰서 던졌는데 잘 됐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줘서 기회를 얻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쓰리피트’ 논란, 왜 KIA 한테만”

아시아 첫 ‘500 2루타’ 최형우 작심 발언 “완벽한 기준 있어야”

KIA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 ‘쓰리피트’ 논란의 중심에 섰고, ‘아시아 최초’ 타이틀을 얻은 팀의 최고참 최형우는 작심 발언을 했다.

최형우는 지난 10일 SSG와의 홈경기에서 ‘500 2루타’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록을 만들었다. 0-1로 뒤진 6회말 2사에서 우익수 키 넘는 타구로 500번째 2루타를 기록한 최형우는 하지만 팀이 2-4 패로 지면서 웃지 못했다.

이날 패배 과정에서 논란의 장면도 나왔다. 2-2로 맞선 8회 1사 1-2루에서 에레디아의 타구가 투수 전상현의 다리에 맞았다. 전상현이 공을 잡아 1루에 송구를 했고, 세이프 판정이 나왔다.

아웃-세이프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KIA는 에레디아의 타격 이후 파울 라인 왼쪽으로 잔디를 밟고 뛰었기 때문에 ‘쓰리피트 위반’ 어필도 했다. 심판진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어진 승부에서 KIA는 역전까지 허용했다.

KIA는 매년 쓰리피트 논란을 겪고 있다. 아웃-세이프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KIA는 에레디아의 타격 이후 파울 라인 왼쪽으로 잔디를 밟고 뛰었기 때문에 ‘쓰리피트 위반’ 어필도 했다. 심판진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어진 승부에서 KIA는 역전까지 허용했다.

지난해 7월 20일 삼성전에서 피렐라의 쓰리피트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KBO는 “쓰리피트 라인 판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으로 인해 2023시즌 후반기부터 쓰리피트 라인 수비방해 규정을 세분화해서 명확히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

히며 규정을 세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도 리그에서는 쓰리피트 위반을 놓고 몇 차례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아시아 최초의 ‘500 2루타’ 주인공 최형우가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자신의 기록이 아닌 팀을 위해 작심 발언을 했다.

“2루타를 많이 쳤다는 것은 의미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자신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한 최형우는 “야구를 하면서 사람이 다쳐야 하는 것이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쓰리피트 논란’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에도 공개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최형우는 “정해놓은 규칙을 모르겠다. 유독 KIA한테 그렇다. 다른 팀 선수들 반응도 그렇다. 전에도 ‘야구가 무슨 피구냐’며 사람을 맞춰야 인정해주고 아니면 인정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비시즌 때도 규정과 관련해 KBO가 설명하면서 안 맞혀도 인정된다고 했었다”며 “마지막 타석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물었다.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주루라고 했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1루수가 홈플레이트 쪽으로 몸을 뺐으면서 잡았을 것이다. 접전 상황이었는데 뺐으면서 잡았으면 아웃이 됐을 것이다. 그랬다면 승패를 몰랐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정해진 것을 하면 좋겠다. 무조건 뛰면 안 돼

라든가 완벽한 기준이 없다. 이런 판정이 나올 때 어떤 팀은 좋고, 어떤 팀은 나쁠 것이다. 둘 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완벽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에게 안 좋은 판정이 나와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다.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화가 많이 난다”고 밝혔다.

혹시 모를 불이익에도 KIA ‘최고참’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 아래 후배들이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IA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지난 11일 KBO에 공문을 보냈다.

KIA는 “야구 규칙에 (타자아웃관련) 타자주자가 본루에서 1루 사이의 후방부를 달리는 동안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으로 달려 1구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며 “전상현 포구 이후 송구할 때까지 (타자주자) 에레디아는 잔디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영상과 화면 캡처를 KBO에 보냈다. 지난해 7월 20일에도 논란이 일어 KBO에서 세부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우리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KIA는 “주심이 관련 플레이가 발생했을 때 안쪽으로 손을 가리키고 있었다. 쓰리피트를 위반하는 수신히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부분까지 두 가지를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13일 KIA의 공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퍼스, 크로아티아 바르바라 자비치 지명

외인 드래프트 1순위... 191cm 큰 키에 공격력 갖춰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024 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서 1순위 지명권을 얻어 바르바라 자비치(사인 왼쪽)를 호명했다.

페퍼스는 지난 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홀리데이인 앤드 스위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크로아티아 출신 아포짓 스파이커 바르바라 자비치(29)를 낙점했다.

자비치는 191cm의 큰 키와 공격력으로 트라이아웃 기간 구단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페퍼스는 지난 1일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키 196cm의 장위를 선방한 데 이어 자비치의 영입으로 높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두바이에 오기 전 영두에 둔 선수들이 있었다. 자비치는 다른 나라 리그를 많이 뛰었던 경험이 있어 코치진의 설명에 대한 이해

도가 높았고, 파워나 높이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아시아쿼터에서 선발한 장위와 자비치가 기존 선수들과 잘 융화돼 팀의 공격력이 더욱 극대화될지 기대한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정상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선수 지명 행사는 순위에 따른 차등 확률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시즌 성적 역순으로 7위 페퍼스(35개), 6위 한국도로공사(30개), 5위 IBK기업은행(25개), 4위 GS칼텍스(20개), 3위 정관장(15개), 2위 흥국생명(10개), 1위 현대건설(5개) 순으로 구슬을 추첨기에 넣었다. 2순위 지명권을 얻은 정관장은 고심 끝에 지난 시즌 한국도로공사에서 뛰었던 반야 부키리치(25·세르비아)를 영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3순위로 왼손잡이 아포짓 스파이커 메릴린 니콜로바(21·불가리아)를 선택했다.

4순위 IBK기업은행은 아포짓 스파이커 빅토리아 멘작(24·우크라이나)을, 6순위 흥국생명은 투트루 부르주(25·튀르키예)를 지명했다.

5순위 GS칼텍스는 지젤 실바(33·쿠바)와, 7순위 현대건설은 23-24시즌 우승을 합작하며 챔피언 결정전 MVP를 거머쥔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31·카메룬)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재계약을 맺은 실바·모마, V-리그 2년차의 부키리치는 30만 달러, 신규 선수는 25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발 타박상’ 이정후 3경기 연속 결장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발 통증 탓에 3경기 연속 결장했다.

샌프란시스코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 경기를 이정후 없이 치렀다.

이정후는 지난 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자신의 타구에 왼쪽 발을 맞았고, 10~12일에서 벌인 3경기에서 모두 결장했다.

13일 신시내티전에는 이정후가 타석에 설 가능성이 크다.

밥 멜린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MLB닷컴과 인

터뷰에서 “이정후의 발 상태가 좋아졌다. 신시내티 오른손 선발 프랭키 몬타스가 등판하는 13일에는 (좌타자) 이정후가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MLB에 진출한 이정후는 타율 0.262(145타수 38안타), 2홈런, 8타점을 기록 중이다.

이정후가 결장한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신시내티를 5-1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맷 채프먼은 1회말 개인 통산 두 번째 만루 홈런을 치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